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나오시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판문점은 긴긴 세월 분열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흘날려버리고 분열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고있었다.

오전 9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을 인솔하시고, 판문각을 나서시어 판문점 분리선앞에 이르시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남측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앞까지 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희와 경탄으로 뒤흔들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향하시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첫걸음을 의의깊게 장식한 수뇌분들을 북과 남의 인사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문재인대통령이 따듯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남측 어린이들이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군의장대사열장으로 향하시었다.

전통악대가 선두에서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광장에는 군악대와 록, 해, 공군의장대, 전통의장대, 전통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문재인대통령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국군의장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으며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영접받은 남측인사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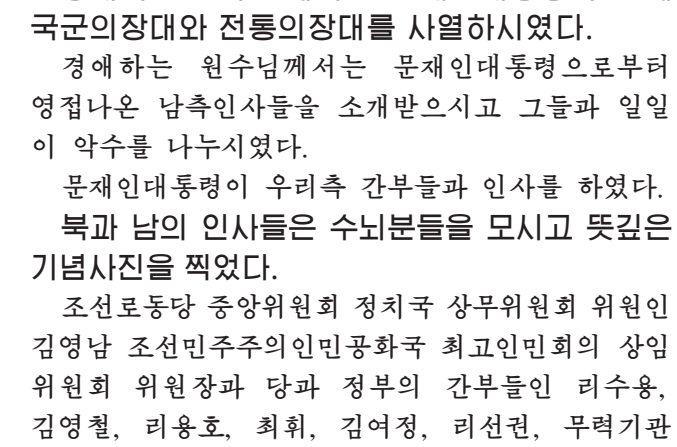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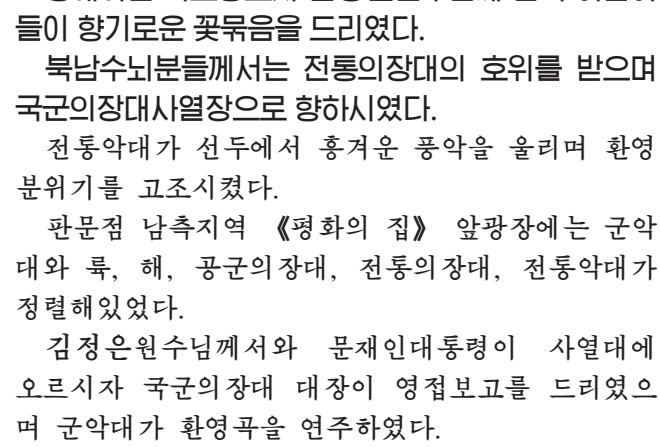
문재인대통령이 우리측 간부들과 인사를 하였다.

북과 남의 인사들은 수뇌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최휘, 김여정, 리선권, 무력기관

간부들인 리명수, 박영식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남측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영찬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분렬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듯 날씨도 화창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흥금을 터놓는 대화가 계속 이어져 우리들사이에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시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과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북남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슬기롭게 개척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문재인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북과 남에서 각각 준비한 백두산과 한나산의 흙으로 합토하고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함께 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몸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덜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정철 푸른 소나무의 강인함만큼이나 강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 표식비가 소나무옆에 세워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표식비 제막모를 벗기시었다.

표식비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식수가 끝난 다음 북남수뇌분들께서는 표식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어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수행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식수가 끝난 후 산책하시며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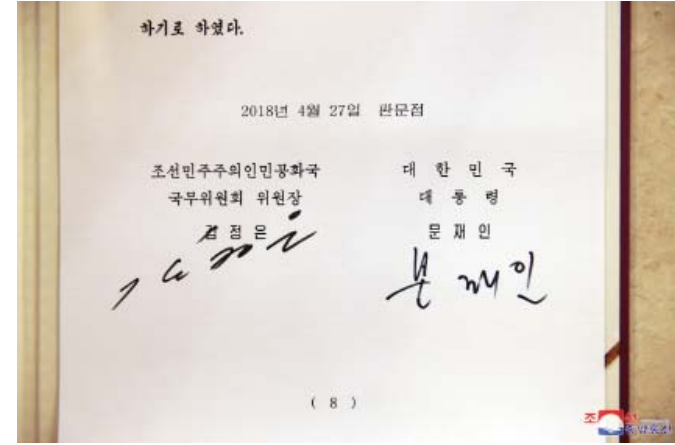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을 축하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 리수용,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영찬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참가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서명식이 끝난 후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이정표로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북남수뇌들은 맹진의 산물인 오픈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북과 남은 민족분열로 산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을 련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배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인민무력상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령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역사적과제이다.

① 북과 남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북측이 취하고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 등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마련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 김영철, 최휘, 김여정, 리선권을 비롯한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만찬에 초대되시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여러 정당 대표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연고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남측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평화의 집》에 도착하신 리설주녀사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만찬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께서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시며 정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성의껏 만찬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내외분들께서는 만찬장앞에서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었다.

이어 수뇌분들께서 만찬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관문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신 두 수뇌분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만찬에서는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남측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여러가지 요리들을, 우리측에서는 옥류관의 평양팬을 연회상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만찬은 시종 혈육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만찬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축하하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의 공연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평화의 집》에서 나오시자 북남인사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야외에 마련된 초대석에 등단하시여 남측에서 준비한 환송공연 《하나의 봄》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공연이 끝난후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뜨겁게 손을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측인사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평화의 집》을 떠나시었다.

력사적인 관문점회담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림없는 자주의지의 발현이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